

과거 일상의 세목 통해 삶의 총체성 복원한다

소장 연구자들의 풍속 연구 현황...

민중지향성과 총체성 복원이 특징

국내의 풍속연구는 오랫동안 민속학에 더부살이해왔다. 하지만 80년대를 전후해 등장한 소장 연구자들은 풍속의 연구를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 다양한 성과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인들의 생동하는 삶의 세목을 되살리면서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풍속'의 사전적 정의는 "옛날부터 그 사회에 행해져온 사람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이다.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풍속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습관이다. 엄밀히 말해 풍속은 민속과 다르다. 민속은 구비전승의 민중문화를 탐구하지만, 풍속은 문헌자료와 구비전승을 아우르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습속을 포괄한다.

근대의 분과학문 체제에서 '풍속학'은 '민속학'에 더부살이해왔다. 민속학도 문학·역사학·인류학 등 인접학문의 '보조학' 처지이긴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근대 민속학은 1920년대에 시작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최남선·이능화가 그 선구자였고, 해방 후에는 손진태·송석하 등으로 이어진다. 1969년에는 임동권·김태근·인권환 등의 발기로 '한국민속학 연구회'가 결성돼 민속학 연구가 본격도에 오른다.

민중지향성과 총체성 복원

1980년대를 전후해 학문적 수련을 거친 소장 학자들이 성장하면서 민속과 풍속에 대한 연구는 '백화제방'의 경지로 나아간다. 80년대 '민중의 시대'를 통과해온 이들은 앞 세대 연구자들에 대한 창조적 비판 위에서 학문의 길을 개척한다. 이전의 민속학이 몰역사성에 함몰되고, 하나의 민족심성(원형)을 찾으려는 환원주의에 빠졌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요지였다.

소장학자들의 문제의식은 대체로 '민중지향성'과 '총체성의 복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선인들의 생동하는 삶의 세목을 되살리면서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발전의 동력을 찾으려는 것이다. 학문연구 방법으로 역사적 관점을 도입하고 학제간 연구를 중시하는 것도 이들의 새로운 점이다.

주강현 우리민속연구소장은 민속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이다.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는 인문교양서로는 드물게 20만부를 상회

하는 판매고를 올렸고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그는 또한 해양풍속을 개척한 공도 크다. 《조기에 관한 명상》(이상 한겨레신문사)은 서해의 조기를 둘러싼 어민 생활상을 세밀하게 재현해 호평받았다.

북한민속학은 주소장의 '전매특허' 분야다. 그는 이미 《북한민속학사》(이론과실천), 《북한의 민족생활풍습》(대동)을 펴낸 바 있고, 《북한의 우리식 문화》도 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민의 동향을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밝히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학자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글쓰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작으로 유명하기도 한 주소장은 현재 '문학과 풍속의 역사'를 집필 중이다. 벽초 홍명희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민중생활사를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해양민속지의 이론과 현장을 종합한 책과 '섹슈얼리티의 역사'도 준비 중이다.

《숫대》(대원사), 《마을신앙의 사회사》(웅진출판) 등을 펴낸 이필영 교수(한남대 역사교육과)는 우리 민족의 종교적 심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그는 10년 전부터 매년 많게는 10여건의 민속조사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해온 현장지향적 학자다. 특히 충청도 지역 무속연구는 그의 독보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이교수는 민속지(民俗誌) 축적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현단계에서는 사라져가는 풍속자료를 정확하게 수집,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빈약한 자료로 논문이나 저서를 생산하는 것은 역사학자가 사료 없이 소설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료들이 풍부하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의 근원적 심성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보다 현장과 자료에 충실

정승모 지역문화연구소장은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향촌사회의 지배세력 변화와 농민문화의 형성과정에 초

점을 맞춰왔다. 그는 90년 주강현·박경하·진철승 등과 함께 '역사민속학회'를 결성, 민속학에 역사성을 접목하는 데도 힘써왔다.

"민속학자들은 솃대나 장승을 연구하면서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 변동과정을 간과한다. 하지만 시대적 맥락이 배제된 민속은 동어반복의 주장만 내놓을 뿐이다"고 말하는 정소장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과거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의 사회사》(웅진출판)를 펴냈던 정소장은 현재 '족보의 사회사'를 집필하고 있다. 족보를 통해 조선후기에 인맥이 어떤 지역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밝힌다는 계획이다. 장기적

게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무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바탕 신명풀이를 멋지게 하는 폭발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판소리와 한국예술 전반에 관한 미학적 탐구를 연구의 궁극적 목표로 잡고 있다.

풍속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민의 동향에 관심을 쏟는다면, 강명관 교수(부산대 한문교육과)는 조선시대 사대부와 중간계층의 놀이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채롭다.

그는 폭스의 《풍속의 역사》(박종만 외, 까치)에 자극받아 풍속에 관심을 돌리게 됐다. 인간의 성이나 유흥도 역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깨달았다.

"지금까지 역사학은 생산이나 노동을 중시했지만, 유흥이나 휴식도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다. 특히 문학·예술은 유흥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는 생산과 관념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소비와 향락까지 아우르는 총체적 역사상의 복원을 강조한다.

강교수는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연구》(소명출판)에서 <조선 후기 서울의 중간계층과 유흥의 발달>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등의 논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현재 조선시대 풍속사를 집필 중이다. 조선전기, 후기, 개

항기로 나눠 소비(도박, 음식, 술 등)와 유흥(음악과 풍류, 성(결혼과 이혼, 기녀, 기방 등) 풍속을 재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미술사 분야에서 풍속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학자는 이태호 교수(전남대 미술교육과)다. 진경산수화 연구로 출발했던 이교수는 80년대 말부터 풍속화로 방향을 돌렸다. 현실과 만나는 미술의 역할을 고민하면서부터였다. 그는 《풍

속화》(대원사), 《한국의 에로티시즘》(여성신문사) 등을 펴내 성석(性石)이나 춘화(春畵)에도 민족의 심성이 녹아 있음을 밝혔다.

"풍속화를 그리는 주체가 양반이든 서민이든 18세기 이후 풍속이 그림의 중요한 소재나 주제로 떠오른다. 그 이전에는 단순히 객체로서 등장했을 뿐이다. 풍속화를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이교수는 전통 회화사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필생의 과제다. 풍속화 연구는 이것을 풍부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는 최근 유흥준 교수와 함께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학고재)을 출간했는데, 양반들의 계모임 그림인 <계회도>를 분석했다. 현재는 《조선시대 땅과 삶을 그린 작가들》(가제)을 준비 중이다.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등 풍속화를 남긴 10여명의 작가론이다.

풍속의 충실한 기록자

사진예술 분야에서는 사진작가 황현만씨가 독보적이다. 그는 장승·초가·돌부처·세시풍속 등을 단아한 사진으로 담아왔다. 《장승》《초가》《조선땅 마을 지킴이》(이상 열화당) 등이 그동안의 성과를 가운데 일부분이다. 그는 자신을 충실한 기록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사진의 생명은 기록이다. 서구화와 산업화에 밀려 사라지고 파손되는 삶의 현장을 기록으로 영구히 남기는 것이 내 작업이다. 길수록 민속의 상징물이나 풍속 등이 사라져가고 있다. 무대에 올려지거나 박물관에 보존된 것은 이미 그 생동감이나 현장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는 현재 세시풍속 촬영에 몰두하고 있다. 정월 초부터 추석까지 각 지방을 훑으면서 풍속사진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있다. 내년 경 출간될 이 책은 자신의 풍속사진 작업의 종합편이 될 예정이다. 그에게는 아직도 미완의 작업이 두 개나 밀려 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돌이나 화폭에 담긴 우리의 얼굴을 담은 작업이 그 하나고, 또 하나는 민중의 염원을 새긴 불상을 찍는 일이다. - 박천홍 기자



으로는 서울의 풍속사·생활사·문화사를 규명하는 것도 집필 일정에 올라 있다.

김현선 교수(경기도 국문과)는 경기도 도당굿 전문가다.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연구》(집문당)가 그 성과물이고, 사물놀이 치배(농악의 악기연주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용배의 전기인 《김용배의 삶과 예술》(풀빛)도 펴냈다. 그는 현장과 자료에 충실하다는 연구방향을 세웠다. 이론은 현장연구와 자료수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